

佛國寺石造三尊像台座

— 특히 石獅子 및 石象에 대하여 —

文 明 大

(1) 序 言

新羅의 彫刻作品들 가운데 코끼리와 사자를 台座로 사용하였던 예는 아마도 한건(二件) 밖에 조사되지 못한 것 같다^①. 이것은 물론 원래 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거나 파괴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하여튼 희귀한 遺例임에는 틀림없다. 筆者는 法水寺의 三尊佛을 다룬 이후에도 꾸준히 이 방면의 자료를 注視하였으나 그후 하나도 조사하지 못하여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여 왔다. 그런데 지난 一九七〇년 六月 一八일부터 시작하여 七月 一五일에 끝난 佛國寺 土量處理工事를 하는 가운데 우연히도 사자와 코끼리를 左右로 하는 三尊佛의 台座를 발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곧바로 七月 三一일에 佛國寺로 내려가서 이것을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근래에 드문 기쁨이었다.

이 글은 당연히 發掘關係者에 의하여 發表되어야 마땅하겠지만 筆者가 이 방면에 관심이 많고, 또 이왕에 이 관계 글도 발표하였으니 하나의 자료로 소개해 달라는 관계자의 부탁도 있고하여 여기에 발표하여 두고자 한다.

(2) 台座의 現狀

이 台座는 원래 三尊佛의 台座들이었겠지만 지금은 本尊이나 脇侍菩薩像들은 하나도 原位置에 남아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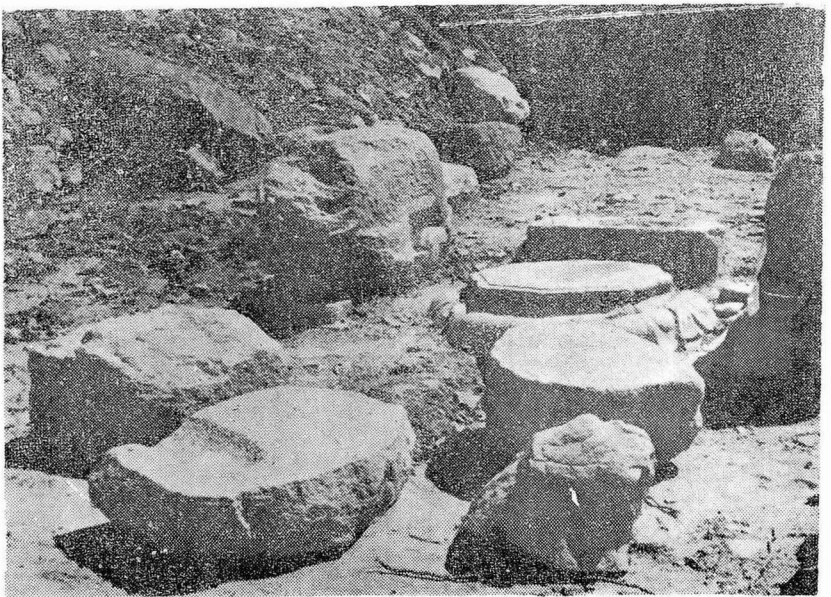


圖 1: 三尊佛台座全景

台座들은 파괴는 되었지만 대체로 그 형태는 남아있는 셈이다. 우선 그 하나 하나를 살펴보자.

① 中央本尊台座

현재 原位置를 지키고 있는 것은 下台 뿐이다. 下台는 地台石 위에 伏蓮을 조각하고 그 위에 白, 물딩, 角形의 三段받침을 표현하였고 다시 1cm를 들어가게 하여 (B) 角形받침을 마련하고 있다. 물론 이것들은 모두 八角台座의 形式을 그대로 固守하고 있다. 蓮花紋은 複瓣이며 瓣

이 넓고 端도 매우 부드러운 편이며 이 端은 八角의 모서리를 이루고 있다. 특히 葉과 葉을 구별짓는 山形에 일단의 홈을 판 것은 이 蓮花紋의 時代相(威通年間의 前後)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이 下台의 蓮花紋과 받침 등 모든 수법은 바로 桐華寺毘盧庵石造毘盧舍那佛坐像과 매우 흡사하며, 또한 法水寺의 것과도 비슷하다. (現高二一cm)

中台는 發掘時에는 없었지만 樓의 柱礎로 사용하던 것을 現地에 옮겨 놓은 것이 있다. 이것은 桐華寺나 法水寺의 例로 보아 거의 中台石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과연 이 台座의 中台石인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치수는 거의 정확히 들어 맞고, 또한 여러 예에서 볼 수 있

下	台	上面 幅·六八cm	一面 幅·二八cm
中	台	上·下面 幅·六一cm	一面 幅·二七cm
上	台	下面 幅·六三cm	一面 幅·二七cm

는 雲紋이나 動物形들이 조각된 一般型의 中台石이어서 아마도 이 台座의 中台石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高二九cm)

上台는 遊離되어 있다. 下面에는 角·홀딩·角形의 三段받침이 있고, 그 위로 重瓣의 蓮花紋이 조각되어 있다. 上面에는 光背를 安置하던 것이라 생각되는 홈이 파여져 있다. 이 역시 桐華寺의 上台와 흡사하며, 특히 蓮花紋은 瓣 가운데 복잡한 花紋을 새긴 수법이 꼭 같아 주목된다. 단지 下面받침이 桐華寺 것이 모두 角形인데, 이것은 中물딩인 점이다를 뿐이다. (高二一cm) 물론 이 모든 台座 수법은 桐華寺나 法水寺의 台座와 유사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 右(向) 象座

形式上 左獅子座 부터 언급해야 마땅하겠지만 獅子座 보다 이 象座가 좀 더 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살펴 보겠다.

코끼리像이 담고 있는 下台는 직사각형 대좌(長方形)이며, 法水寺의 것과 꼭 같은 형식이다. 위로 갈수록 줄어 드는(收斂) 수법으로 만들었는데, 모두 四段의 角形받침으로 되었다. 二段 階에 伏蓮이 單瓣으로 조



圖 2 : 코끼리상

각되었는데 側面에 二葉씩 前後面에 四葉씩 모서리에 一葉씩 모두 三六葉의 蓮花紋이 새겨진 것이다. 이것은 昌寧 觀龍寺石造如來坐像의 伏蓮과도 비슷하고, 雙峰寺 澈鑑禪師塔碑(八六八年 頃作)의 碑座의 伏蓮과도 유사한 수법인 것이다. 法水寺의 台座에는 이런 蓮花紋 장식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었다.

이 四각형 대좌 위에 코끼리상이 올려져 있었다. 中台石의 일종이라 하겠다. 코끼리는 角形의 받침 위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다. 이 코끼리像의 下面의 幅은 직사각형 上面 幅 보다 八cm 정도 더 넓어 일면반인에 게서로의 時代를 달리 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머리가 떨어져 버려 손상이 심하지만 向右側은 거의 完存하여 원래의 모습을 겨우 復原해 볼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떨어져 있는 머리도 눈 이상만 있을 뿐

인데, 눈을 옆으로 치켜 올려지게 하였으며, 굴레가 이마에서 十字로交叉하였는데 交叉된 곳에는 角形을 새겼으며 눈 아래도 마찬가지로 표현하였던 것 처럼 보인다. 이러한 結構 수법은 松廣寺 木彫三尊佛龕에서 볼 수 있는 수법이며 古拙한 것으로는 三國時代 土隔騎馬像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右側의 身部에는 鞍裝과 굴레가 표현되어 있는데 안장은 外面에 瓜形紋을 돌렸고, 그 안에 連珠紋, 중심부에 蓮紋(줄기·잎·꽃)의 變形이라 생각되는 것이 새겨져 있다. 이 안장에서 蓮紋의 줄기나 잎을 제외하면 法水寺의 것이나 거의 비슷한 안장이 될 것이다. 목과 꼬리 부분에는 안장에 걸쳐서 굴레의 띠가 交叉하여 안장을 붙들어 매게하였다. 등어리는 평평하게 하였는데 주위로 雲文——法水寺의 것은 蓮花紋을 조각하였다——을 새겼으며 法水寺나 松廣寺의 例로 본다면 이 위에는 仰蓮 上台座가 놓여졌을 것이지만 지금은 찾을 수 없다. 角形받침에 무릎을 굽혀 엎드려있는 발은 보통 코끼리상과 같이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코끼리상은 전체적으로 조각수법이 둔중해지고 형식화되고 있는 것은 直感할 수 있다.

㉔ 左(向) 獅子座

사자의 머리를 제외하고는 下台에서부터 身體에 이르기까지 전부 右象座와 同一하다. 이 사자는 역시 머리가 떨어져 있고 左右側面의 거의 전부가 손상을 입고 있는데, 겨우 右側面의 약간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 사자도 역시 무릎을 굽힌 엎드린 자세인데 여기 발은 발톱을 날카롭게 표현하고 있으며 法水寺의 것과도 相通한다. 사자의 머리에는 입이 떨어져 나갔지만 목 부근의 갈퀴라던가 눈 등은 잘 남아 있는데 코끼리상과는 달리 굴레가 없다. 이것은 역시 松廣寺의 것과 같은 수법이다.

(3) 樣式上 年代問題

本尊 台座의 樣式은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桐華寺 毘盧庵 石造如來座像의 台座樣式과 흡사하다. 下台의 伏蓮이라던가 받침의 수법, 또는 上台의 仰蓮 등은 桐華寺의 것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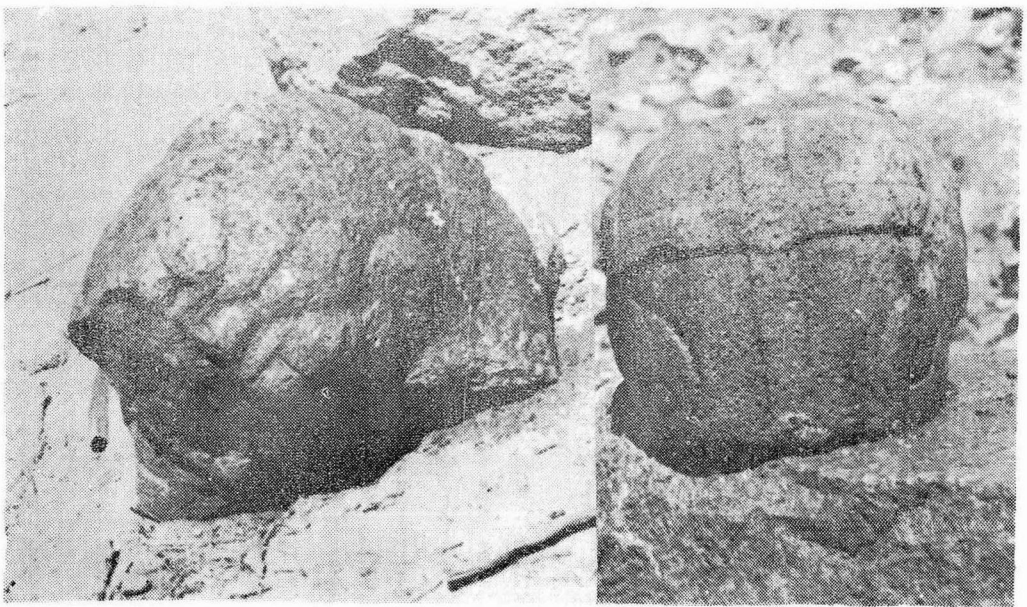


圖 3: 사자, 코끼리상의 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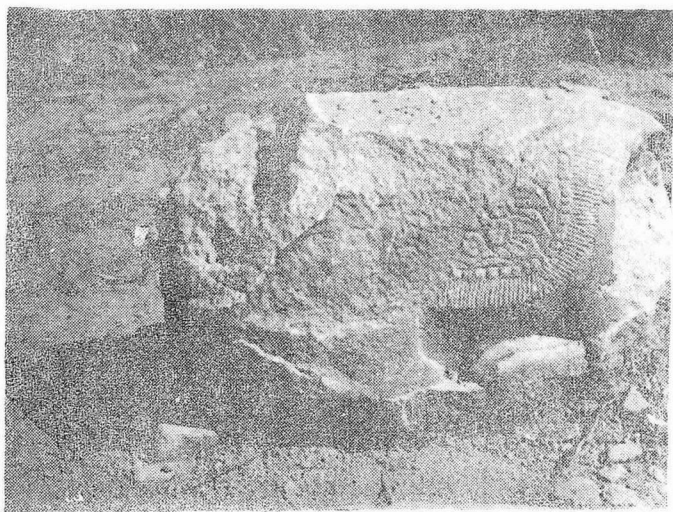


圖 4 : 사자상

이 台座의 造成年代를 桐華寺의 것과 거의 同一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桐華寺毘盧舍那像은 같은 庵子의 밑에 있는 三層石塔과 同一年代로 본다면, 威通年間(八六三 A, D) ③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것은 蓮花紋 내지 台座技法에서 鸞棲寺 등 威通年間(八六〇)~八七三 A, D)의 台座와 흡사한 수법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左·右의 下台가 모두 法水寺의 것과 흡사하지만, 이것은 蓮花紋을 조각한 점이 특이한데 이런 수법은 澈鑑禪師塔碑座(八六八 A, D) 등 威通年間 내지 九세기 末의 塔碑 등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양식인 것이다.

따라서 이 佛國寺 三尊台座는 威通年間(八六〇)~八七三 A, D) 내지

九세기 末의 作品으로 보면 거의 틀림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獅子나 코끼리像의 造成年代이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상을 보고 左右의 下台나 本尊台座와는 時代가 다른 다시 말하면, 年代가 훨씬 떨어진다는 작품으로 본다고 한다. 그것은 첫째로 직사각형의 下台上面 보다 이 두像의 下面이 넓고, 둘째로 조각이 투박스럽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첫째의 이유는 法水寺의 두像의 下面이 下台上面 보다 一五cm 나 더 넓기 때문에 이런 例로 보면 이것은 成立될 수 없는 이유이다.

둘째의 이유인 작품의 투박스러움을 살펴보자.

전체적으로 확실히 투박스럽다. 法水寺의 사자나 코끼리의 생동하는 모습을 볼 때와는 현격한 차이를 느끼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느끼게 하는 모든 것을 분석하여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첫째 코끼리 머리의 골레는 확실히 法水寺에서 볼 수 없었던——물론 떨어져 잘 알 수 없지만——형식적인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松廣寺의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둘째 안장의 세부표현이 新羅樣式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形紋이나 그 안의 連珠紋 또는 花紋은 法水寺의 것과 흡사하다. 다만 좀 형식화 되었을 뿐으로 인이나 줄기같은 것은 法水寺의 것에는 보이지 않지만 松廣寺의 木彫三尊佛龕에서 이 일과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어서 年代를 떨어지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골레의 표현 역시 法水寺의 것에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像의 上面을 돌린 雲紋의 수법이 桐華寺毘盧庵塔內 舍利壺의 雲紋과 유사한 것도 주의된다.

세째로 옆드린 자세와 발의 표현 등은 法水寺와 흡사하며, 사자의 머리나 신체 또는 발의 표현 등은 高達寺址雙獅子石燈의 사자상과 같은 高麗의 사자상의 투박한 솜씨와는 判異한 寶林寺普照禪師나 澈鑑禪師塔碑 등 新羅下代의 龜趺 등에서 보여주는 樣式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나는 이 사자와 코끼리상도 기타 台座와 마찬가지로 九세기 末의 作品으로 보고자 한다. 이것은 또한 다른 대와는 그대로 보존되었는

데, 단지 코끼리와 사자상만造成된 후 一〇二세기를 지나 파괴되어 다시造成했다고는 상상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기 때문이다.

(4) 三尊像名稱의 推定

그러면 이 台座 위에 놓였던 三尊像들은 어떤 佛像들이었을까. 우리의 佛像의 名稱을 두가지로 限定시킬 수가 있다. 그것은 獅子와 코끼리像 때문이다. 사자와 코끼리를 타는 脇侍像은 文殊와 普賢이고 이 두 菩薩을 脇侍로 하는 佛像은 毘盧舍那佛과 釋迦如來이다. 따라서 이 三尊의 本尊은 두 佛像 가운데의 어느 것일 것이고, 左·右脇侍像은 文殊와 普賢이다.

現狀으로는 毘盧舍那인지 釋迦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 이것을 구태어 추정한다면 九세기에 流行하던 彫刻들에서 알아낼 수 밖에 없다.

물론 九세기 그것도 中葉쯤 되면 毘盧舍那佛이 釋迦如來 보다 훨씬 더 造成되었다고 추정된다. 桐華寺, 鷲棲寺, 寶林寺, 法水寺, 聖住寺, 法光寺 등 九세기에 창건된 禪院한 寺刹들은 禪宗이건 華嚴宗이건 간에 毘盧舍那佛을 造成하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④. 특히 같은 사자와 코끼리를 탄 文殊와 普賢을 脇侍로 하는 法水寺의 本尊은 毘盧舍那佛이라는 사실은 주목하여야 될 것이다. 물론 密敎의 流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時代의 인 특징 때문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이런 時代의 인 潮流를 감안하여 毘盧舍那三尊佛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佛國寺古今歷代記 中

「佛國寺毘盧舍那 文殊 普賢像讚」⑤에서 보다시피 이 佛國寺에는 이미 文殊와 普賢을 脇侍로 하는 毘盧舍那三尊佛이 造成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台座와 이 三尊像과 결부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더 연구해 보아야 되겠지만 이 台座가 文殊와 普賢像을 安置하였던 것이고, 다른 實例는 없으며 事蹟記를 통해서도 文殊·普賢을 脇侍로 하는 三尊像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唯一한 文獻의 例와 實物의 例를 결부시키는 것이 억지 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5) 結 語

사자와 코끼리를 脇侍로 하는 三尊台座의 새로운 出現은 몇가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九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 法水寺의 三尊像이 조사된 후 아마도 九세기 후반, 대체적으로 咸通(八六〇)~(八七三 A, D)年間, 또는 그 직후의 造成으로 보이는 새로운 資料가 출현하므로서 樣式上的의 변천을 追求할 수 있고, 또한 이런 類型的의 三尊台座가 더 많이 出現될 가능성을 示唆해 주고 있다.

둘째, 이 台座의 主尊들이 毘盧舍那佛과 文殊·普賢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法水寺의 것과 마찬가지로 九세기의 信仰狀況을 파악하는데 유익한 資料를 제공하여 주는 셈이다.

셋째, 九세기에 이와 같은 三尊像을 造成하였다면 佛國寺가 創建된 一세기쯤 후에 새로운 重創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佛國寺古今歷代記에 보이는 「大華嚴宗佛國寺毘盧遮那文殊普賢像讚」같은 記錄과 부합되기도 하므로 佛國寺 研究에 좋은 資料가 될 것이다.

따라서 主尊의 追求와 原位置問題 같은 것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것이며 이 台座의 출현으로 古今歷代記에 보이는 毘盧舍那佛과 현재 남아 있는 金銅毘盧舍那佛의 연관 내지 그 원위치 등이 해결될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된다.

나는 이상의 언급에서 일단 이런 문제를 제기해 보았던 것이며 앞으로 더 정확한 근거를 잡아서 追求하고자 한다.

註① 拙稿: 「法水寺의 마하비로자나 三尊佛」, 古文化五, 六台輯 참조. 물론 松廣寺의 木造三尊佛龕에도 있지만 그것은 外來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선 省略한다.

② 文化財大觀 國寶篇 P 二三八 및 中吉功 「新羅·高麗佛像」 P 四〇三 참조

③ 黃壽永 「新羅敬哀大王石塔記」 史學志 第三輯, 檀國大學校 史學會

④ 拙稿 「八·九世紀의 金剛界摩訶毘盧舍那佛像」 考古美術 九一六

⑤ 「佛國寺·華嚴寺事蹟」 考古美術資料 第七輯, 考古美術同人會